



한국지엠 부평 창원 비정규직지회

<군산공장 선전물>

● 2014년 3월 11일 (화) ● 발행 : 한국지엠 부평, 창원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군산공장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 노동자 여러분! 저희들은 한국지엠 부평, 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군산공장에서 선전전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군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해,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듯이 한국지엠은 유럽에서 2015년까지 시보레 브랜드를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1월부터 2교대로 운영되는 군산공장을 1교대로 전환 및 1100명의 인원감축을 요구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의 반발로 1교대로의 전환은 포기하겠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 했지만, 실상 인원감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2월 2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군산공장 정규직지회와 사측의 노사합의가 전격 발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군산공장 JPH(시간당 생산대수)를 낮추면서 2교대를 유지하되, 정규직을 전환배치하고 비정규직은 순환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규직을 부평, 창원, 정비로 전환배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주로 일하는 KD와 PDI 비정규직 공정에 정규직을 전환배치 하는 것은 사실상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합의 문에는 총고용이 보장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3개월 유급휴직과 6개월 무급휴직, 퇴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취업노력등의 문구가 있지만, 이것은 첫단추부터 잘못된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급순환휴직은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습니다. 국가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임금도 안되는 돈으로 6개월을 버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긴 상태에서 순환휴직이 끝나는 9개월 후에는 돌아갈 일터가 없는데, 어떻게 마냥 기다리겠습니까? 지난 2008년 미국발 경제공황의 여파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왔던 비정규직노동자 1000여명이 사실상 해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급휴직, 무급휴직으로 진행되었지만, 결국은 원하청의 막무가내 희망퇴직 총용으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생계유지 때문에 쥐꼬리만한 위로금과 함께 정든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지엠은 얼마전까지 5년간 8조원을 투자하고,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노동자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2015년까지 시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철수한다고 하고, 20만대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공장에서 10만대만 생산하겠다고 하면서 고용을 미끼삼아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쉼보레에서 가장 잘 팔리는 크루즈를 갑자기 반토막 생산을 해야 할 정도로 물량이 없는 것일까요? 의도적으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답변하지 않고 있고, 오로지 지엠의 결정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종 자동차업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강도를 조금만 줄이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킬 수 있지만, 지엠자본은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로 비용이 많이 든다느니, 제조원가가 많아 경쟁력이 떨어진 다느니 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통상임금 소요비용, 유럽쉐보레 철수비용을 회계에 반영하여 마치 한국지엠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에만 바쁩니다. 한국지엠은 공장이 잘 돌아갈 때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위해 비정규직을 뽑았다가, 물량이 없다고 일회용처럼 취급하여 공장에서 쫓아내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더이상 비정규직을 일회용 취급하지 말고, 비정규직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규직 전환배치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무급휴직은 사실상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로 이어집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이 중요한 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평에서는 상시적인 인원감축으로 억지로 퇴사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회안정망이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해고가 어떻게 노동자

들을 벼랑에 내모는지 쌍용자동차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매번 자본은 회사가 어렵다고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결국 그 희생양은 비정규직이 되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총고용보장이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총고용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산지역에서 얼굴 맞대고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노사합의는 첫단추를 잘못끼 힌 합의이며,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응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만간 구조조정 상황이 또다시 부평, 창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마다 비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장의 휴업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은 사라지고, 노동자들의 단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노사합의를 철저히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누가 대신해주길 바라지 말고 노조로 단결합시다!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앞서 우리는 최근 있었던 노사합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나서야 하나라도 더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처음에 1100명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원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한국지엠은 여전히 엄청난 인원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로 뭉치고 단결하는 것만큼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비정규직노조를 만듭시다! 잘못된 결정에 문제제기하고, 좀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냅시다. 한국지엠 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단기직,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 중간 공백 있더라도 2년 이상 일한 단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최근 단기계약직으로 재계약을 반복한 비정규직이 근무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직(장기직)으로 봐야 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지노위 판정이 있은 후 해고된 노동자는 현장에 무기계약직(장기직)으로 복직했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당사자는 2008년 2월부터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다른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제조·생산직에 근무해 왔고, 2010년 8월부터 '종합개발' 소속으로 일해 왔으며, 종합개발과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을 반복·갱신해 왔다. 종합개발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왔고, 세 차례에 걸쳐 짧은 근로계약 공백기간을 두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지노위는 단기계약직이더라도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수차례 반복되었으며,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관례적으로 재고용이 될 거라는 기대심리로 다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공백기간 중에도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내렸다. 2년을 넘지

못한 이들의 경우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판정이지만, 이번 판결은 단기직에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다.

단기계약직도 2년이 지나면 자를 수 없다. 단기계약직이라고 포기하지 말자!

군산공장 인원감축으로 단기계약직이 먼저 쫓겨날 것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니 나가라고 할 텐데, 그냥 자포자기하여 쫓겨나지 말아야 한다. 창원공장 계약직에 대한 판정처럼 2년 넘은 계약직의 경우 고용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계약직인 것 알고 들어온 것 아니냐, 약속지키라”고 하지만, 상시적인 공정에는 계약직을 쓰면 안 된다. 원래 장기직으로 고용했어야 함에도 계약직으로 고용한 한국지엠과 하청업체에 잘못이 있다.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 온 단기직에게 이제는 재계약거부라는 해고를 날리려는 사측의 시도에 그냥 당하지 말자.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비정규직지회가 함께 하겠다.

- 비정규직지회에 각 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알려주십시오. (연락처 및 이메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 휴직동의서를 거부합니다. 휴직통보를 받더라도 휴직시작일에 출근하여 자기의 공정을 지키고 우리의 일자리를 지킵시다!
- 혹시라도 희망퇴직을 강요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업체폐업시 사직서 강요를 거부합니다!
- 강제적으로 휴직이 통보되더라도 동료들과 서로 연락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비정규직지회에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이 희망입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합시다! 비정규직지회로 뭉칩시다!

노조가입하면 해고될 것 같다는 생각, 추천서 써준 업체사장 혹은 지인 걱정은 그만 합시다.

조용히 나가면 더 힘들 뿐 아니라, 추천서 써준 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혼자 가입하기 어려우면, 우선 점심시간, 퇴근길, 퇴근후 술자리 등에서 친한 직장 동료들과 먼저 해당 업체의 구조조정 상황 등에 관해 논의해 봅시다.

그런 후에 노조와 함께 할 수 있다면, 혼자 가입하는 것 보다는 훨씬 부담이 작아질 것입니다.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로 단결하여 함께 헤쳐나갑시다!

● 직접 연락주세요!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영수 010-8513-5535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진 환 010-2732-2318

●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가능합니다!

dwbi.nodong.net 으로 들어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조합원 가입]을 클릭하세요!

● 이메일로 상담하세요!

업체 구조조정 상황이나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dwbi@jinbo.net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gmcwb@jinbo.net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으로 보내주세요!